

外國에 있어서의 情報活動

文獻部長 馬 東 城

우리나라의 情報活動은 이제 겨우 싸이틀 程度이다. 技術振興이 後進性 脫皮에 必要한 絕對要素라던, 後進度의 數乘에 逆比例하는 情報活動이 自主經濟確立에 不可避하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重要한 問題의 解決을 期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하고 있는 情報活動의 一端을 紹介하여 刺戟을 받음도 그 한 方法이 될수 있거 않을가 한다. 그러나 外國事情을 文獻에 依해서 紹介하는 까닭에 多少나마 歪曲性이 있을 까 憂慮를 禁치 못한다.

情報活動이란 簡單히 말해서 우리의 業務에 關聯되는 情報(業務의 推進度에 參考가 되는 資料)를 될수 있는대로 넓은 範圍에서 蒐集하여, 그 內容을 專門的인 立場에서 分析, 評價, 分類, 整理하고 이것을 必要로 하는 사람에게, 必要할때에 迅速히 提供하여 效果的인 業務의 推進을 期함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옛적부터 行하여진 것이나 單只 그것이 個人的으로 되었고, 그 사람의 業務의 一部에서 行하여졌고, 그리고 그 사람만을 爲한 것이어서 組織的인 活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最近과 같이 科學技術의 進展이 急速하며, 그리고 綜合的인 技術의 成果를 必要로 하는 時代고 보면, 前記와 같은 個人的 活動으로서 到底히 때의 흐름에 맞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科學技術의 非常한 進展期에 當面하여, 그에 隨伴하여 發生하는 莫大한 情報洪水의 處理에 苦悶하고 있다. 그리고 이 莫大한 情報를 잘 利用함이 科學技術의 進歩에 큰 效果가 있음을 또한 是 認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業務에 關聯된 새로운 情報를 넓은 範圍에서 調査, 蒐集하여, 適時適所에 利用하기 쉬운 形態로 提供할수 있도록 情報活動을 組織化하며, 強化할 必要性이 생긴다.

그러므로 最近 各方面에서, 이 業務를 獨立 專門化하여 利用者에게 強力한 Service機關으로 함과 同時에 다시 一步 前進하여 技術開發의 中心部門으로 化하는 傾向이 濃厚하여 감은, 必要性에서 오는 當然한 結果라 하겠다.

우리나라 情報活動의 現況은, 産業과 直結되는 企業

體의 活動은 無에 가깝고, 歐美의 先進諸機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利用者로부터의 必要에 따른 強한 要望에 依하여 이러한 것이 必要할 것이라는 豫測밑에 겨우 二年前 設立된 中樞的 機關이 KORSTIC이다.

隣國 日本의 境遇도 上記와 大概 같은 形態로서 圖書館을 中心으로 發足한 傾向이甚하며, 따라서 그 形態도 情報活動의 一環으로서의 圖書館運營이라기 보다 圖書館活動의 一部로서의 資料管理的 色彩가 濃厚하며 眞意의 情報活動으로서는 大端히 消極的인 것으로 보겠다. 利用者로부터 厚한 後援을 얻어 成長할 境遇에 는 問題가 안되겠지만 逆으로 利用者를 끌어오는 立場에 서있다면 積極的으로 運營치 않는限 그대로의 狀態에 放置하던 利用者와의 結合이 薄하여질것은, 豫測할수 있는 일로 본다. 問題로 情報部門의 人員活動이 어떻게 第一線 技術者의 日常業務에 陰으로 힘어 들어가며 (解釋如何에 따라서는 先導的 役割), 다시, 이 業務를 어떻게 企業에 있어서의 技術開發方針의 確立이라는 큰 問題에 直結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 點의 Key를 찾기에 도움이 될가하여 다음엔 歐美에 있어서의 情報活動을 살펴보고져 한다.

歐美地域에서, 科學技術關係의 組織的인 情報活動이 企業속으로 浸透한것은 大體 戰後의 일이다. 情報科學者(Information Scientists)—情報研究者—情報技術者等으로 불리우는 存在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從前 情報를 取扱하는 部門의 人員들은, 境界를 明確히 하지않고, 圖書館管理者(Librarian)와 情報管理者(Documentalist)의 二種類로 區分하여 業務를 分擔하여 왔으나, 이들의 活動을 다시 效果的인 것으로 하기 爲하여 거기 情報科學者를 둔것이다. 이 人員들은 情報管理部門에서 蒐集한 資料를 企業의 特性에 따라 適確히 分析, 評價하여 그中에서 效果的인 것만 選擇, 必要한 時期에 利用하기 쉬운 形態로 提供할수 있는 人員으로서 情報, 研究, 經營의 三部門에 密接하게 連結되어야한다.

情報科學者는 蒐集한 資料에서 企業에 있어서의 技術開發方針을 設定하기 爲하여 諸情報를 包括整理하여 그 企劃에 參與하고 또 資料의 分類, 整理에 對해서는 그 內容을 專門的인 立場에서 分析하여, 情報管理者를

指導한다. 一方 決定된 技術開發方針에 따라서, 研究開始前 關係있는 資料를 廣範圍하게 調査檢討하고, 研究의 重複에 依한 浪費를 막고 研究의 早期完了를 圖謀하며, 다시 研究着手後에는 研究者와 恒常 連絡을 維持, 障礙를 事前에 解決할 수 있도록 情報面으로 協力하고 指導한다.

情報科學者는 그 任務의 重要性和 그 內容이 高度의 專門을 必要로 하는 까닭에, 各企業마다 最高級의 經驗이 豊富하고 뿐만아니라 企業의 事情을 熟知한 技術者로 充當한다. 이와같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資料는 곧 皮가 되며, 살이 되는 貴重한 情報로서, 利用者에게 있어서는 以上 더 없는 좋은 効果의 것이 된다. 即 情報活動이 바로서 산것이 된다. 또 이와같은 情報科學者들을 研究部門에 두지않고, 情報部門에 配置하고 있는 理由는, 企業의 큰움직임에 直接 Touch함으로써 自己

行動範圍를 보다 適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技術의 進歩가 激甚하고, 그 結果로서 生기는 새로운 製品은 過去와 같이 單純한 것이 아니고, 多種의 技術의 集成 成果로서 生기는 境遇에는 文獻調査로서 達成되는 研究의 部門이 漸漸 커지게 마련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早期 企業的 効果를 얻을수 없는 것이다. 研究, 經營部門에 情報部門이 密着하여 漸次 一致되므로 企業으로서의 有機的인 作用의 潤滑劑가 되는 傾向이 커져가는 것도 當然한 結果로 生覺된다. 情報活動의 참된 姿勢는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實情으로 볼때, 必然 한번은 通過해야 할 길이라면, 빨리 달리기로 하고 늦게 出發하기보다 일찍 떠나는 것이 옳지않느냐는 生覺이 떠돈다.

Contents Sheet Service

蒐集하는 定期, 不定期刊行物, 研究報告書, 特許明細書等の 科學技術情報센터에서 購入하고 있는 文獻資料의 目次만을 複寫하여드리는 일로서 希望하는 文獻資料를 入手함과 同時에 複寫하여드립니다.

※ KORSTIC 所藏 外國科學技術 Journal 目錄을 申請하시면 40원으로 提供합니다.

1) 料 金

種 類	料 金	配布日	備 考
月2回發刊되는 學術誌	500원	每月20日	年間
月刊으로 =	300원	= 30日	=
年8回 =	200원	不定期	=
年6回 =	150원	=	=
年4回 =	100원	=	=
其他 =	25원	=	1 件當

2)

文獻目次複寫申請書

(Contents Sheet Service)

No _____

J. No	誌名	金額
Vol _____ No _____	發行年度 19__	원
Vol _____ No _____	19__	원
1. 소속기관 Tel _____		計 金 원

2. 주 소 통 반 Tel _____

3. 성 명 인 _____

上記와 如히 文獻目次 複寫를 依頼합니다

196 年 月 日

※料金支拂方法은 { 1. 振替送金
2. 小額送金
3. 現 金